

시

표정

김소유
광주교대광주부설초 4학년

우리 반엔
정말 많은 표정이 있어요.
아침엔
꽃처럼 활짝 핀 얼굴
“안녕!” 인사할 땐
햇살도 우리를 따라 웃어요.

수업이 시작되면
콜라처럼 펑! 하고 터지는 표정
손을 번쩍 들며
눈빛이 번쩍번쩍
점심시간엔
급식을 먹고 나면
우리는 놀이공원에 온 것처럼
깔깔깔, 까르르르, 웃음이 춤을 춰요.
하지만 다시 수업이 시작되면
선생님 얼굴은
부대찌개처럼 부글부글
우리는 조용조용, 눈이 실금
이렇게 우리반은
하루 종일
알록달록 색칠하늘
표정 놀이터예요.

산문

용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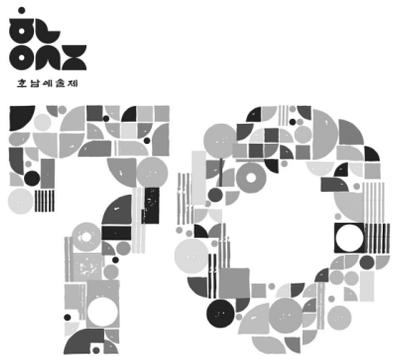
오서운
진제초 4학년

우리 엄마는 내가 용돈 받으면 늘 이렇게 말한다.
“엄마가 갖고 있다가 대학 갈 때 줄게~ 자, 얼른 줘.”
나는 그렇게 항상 엄마에게 뺏긴다. 그래서 한번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라고 물었지만 소용없었다.
엄마는 “너 그러다 받을 때마다 다~ 쓸거잖니 그러니까 그냥 엄마한테 줘.” 라고 하였다.
나는 그렇게 용돈을 받을 때마다 뺏기는 건가? 라는 생각에 속이 상했다.
번쩍! 좋은 생각이 났다.
우리 엄마는 항상 “얼마 받았니?” 라고 묻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거다!

첫번째! 용돈을 잃어버렸어요 방법! 받은 용돈을 숨기고 잃어버렸다고 하는거다.
바로 시도해 보았지만 이 방법은 실패다.
엄마는 “그러니까 바로 말했어야지!” 하고 화만 냈다.
두 번째! 용돈을 못 받았어요 방법! 용돈을 숨기고 용돈을 못 받았다고 하는거다.
이번에는 성공할 것 같다.
다시 시도해 보았지만 “너가~하니까 용돈을 못 받지” 라는 엄마의 잔소리를 얻었다.
이제 세 번째! 용돈 금액의 절반만 받았어요 방법! 받은 용돈에 절반 또는 일부분만 말하는 거다.
이제 마지막 방법이다.
드디어 성공! 그렇게 나는 용돈의 절반은 모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한가지 큰 문제가 있었다.
바로 나의 죄책감이다. 나는 용돈이 좋아서 처음에는 절반, 그다음은 조금 더 또 조금 더 계속 늘렸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모아지는 용돈만큼 죄책감도 커져갔다.
이제 이걸 그만하고 싶다. 아니, 못하겠다. 용돈을 다시 뺏

기는 건 싫지만, 엄마를 속이고 있는게 더 싫다.
이제 그만 진실을 말해야겠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엄마를 불렀다.
그 순간 엄마의 다정한 눈빛에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엄마, 죄송해요...죄송해요. 흑으앙~” 말하면서도 내가 무슨말을 하는지, 잘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됐다. 그냥 울고 있었다.
엄마는 내가 잘못했는데도 미안하다고 힘들게해서 미안하다고 해주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아주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엄마가 말했다.
“우리 이제 이런 일 없게 우리 딸이 용돈 관리 할래? 대신 용돈 기입장도 쓰고, 하루에 사용할 금액도 정하는 거야 어때?”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날 보며 웃어주셨다. 나도 엄마를 보며 웃어주었다.
물론 거짓말을 했으니 혼이 나긴 했다. 그래도 답답했던게 훌거분이 벗겨진 느낌이다.
이렇게 용돈 소동은 끝이 났다.

단체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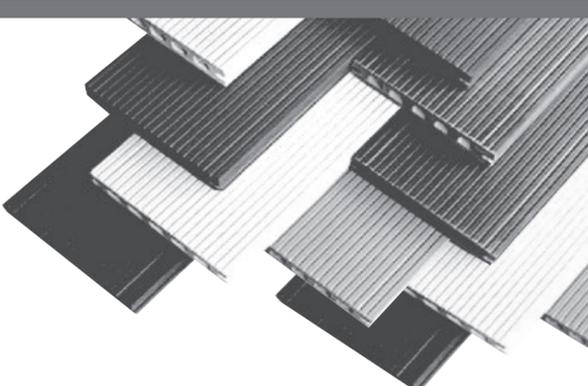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황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린티어벤처 KIBO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